metro
메트로 2013년 8월 26일 월요일

김하늘 역대 최소타 우승

금융권 취업 '바늘구멍'

하반기 채용 30%나 줄여

하반기 금융권 취업문이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경기불황에도 채용인원을 대폭 늘린 대기업과는 달리 점포축소 등 구조조정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금융권은 채용인원을 30%나 줄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은행은 올해 하반기 공채에서 749명을 뽑을 예정이다. 상반기 공채 규모와 합치면 총 2722명(일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포함)이다. 지난해보다 1036명(27.6%)이나 적다.

7대 보험사의 하반기 채용 규모도 반토막 수준이다. 동부화재의 하반기 정규직 공채는 40명으로, 지난해 8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의 연간 채용규모도 각각 지난해 124명과 211명에서 올해 111명과 17?명으로 감소한다. /이국명기자

62년간 간직한 '아버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찾기 소회 진수참구에서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500인에 선정된 이□□ 할머니가 아버지의 예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여보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 할머니는 1951년 1·4후퇴 때 서울역에서 아버지와 헤어졌다. /연합뉴스

여름 끝자락 '스마트폰 후유증'

휴가 내내 끼고 산 직장인 전자파 폐해 호소…눈·귀 이상에 집중력 저하까지

#부산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새내기 은행원 정고은(26)씨는 요즘 온몸이 피곤하다. 단순한 휴가 후유증이라 여겼는데 비염 증세까지 있어 병원을 찾았더니 뜻밖의 진단이 내려졌다. 휴가기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숙용지 왕복을 하고 무선인터넷으로 TV프로그램을 보고 음악을 듣는 등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탓에 건강이 악화됐다고 의사가 지적한 것이다. 휴가라고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끼고 살았던 자신이 후회스럽기만 하다.

휴가기간에도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서 놓지 못해 바캉스 후유증을 앓는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816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휴가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밝힐 정도다. 특히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수면, 뜨거운 자외선으로 생활리듬이 깨진데다 스마트폰 등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IT기기의 장시간 사용이 휴가 후유증을 가중시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업무 복귀 후 집중력이 지나치게 떨어졌다면 전자파의 폐해를 의심해봐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각종 뇌 질환과 신경손상의 원인이다. 특히 지하철 등 갇힌 공간에서는 전자파가 7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신체에서 최소 16cm 이상 떨어뜨려야 전자파의 90%를 막을 수 있다. 또 밤에 잠을 잘 때도 스마트폰은 절대 머리맡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

구진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체온 상승, 집중력 저하, 어지러움증 등을 느끼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며 "각종 동영상과 음원은 실시간 재생 서비스 대신 파일로 내려받은 후 이용해야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했다.

휴가를 보낸 후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청력은 시력과 달리 양쪽 청력이 동시에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번 나빠지면 이전 상태로 회복이 어렵다.

소음성 난청 전문가 소리이비인후과 신중욱 원장은 "고막에 가까운 이어폰과 헤드셋보다 스피커를 이용하라"면서 "평소 조용한 곳에서만 소리를 듣되 볼륨은 50% 미만으로 설정해야 청력 관리에 좋다"고 말했다.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 1시간마다 최소 10분은 쉬어야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배경 소음이 심한 곳에서도 이어폰·핸즈프리 이용을 삼가야 한다.

눈 이상을 호소하는 직장인들도 많다. 출퇴근 시간 만이라도 눈에 지나친 자극을 주는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사용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 또 사무실 모니터를 15도 가울이고 모니터를 앉은 위치에서 30~40cm 떨어뜨리면 시력 자극을 줄일 수 있다. 모니터 밝기는 주변 조도에 맞춰 조정하면 눈의 피로를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휴가 후유증으로 괴롭다면 스마트폰 등 IT기기 사용을 상당기간 자제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한다.

/정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제값 못하는 고가 등산스틱

노스페이스 등 품질 별로
네파 가격대비 성능 우수

한국소비자원이 12개 브랜드의 등산스틱 성능을 비교 평가한 결과 레키와 네파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시판 모델 가운데 두랄루민 재질이면서 손잡이가 일자형인 3단 길이 조절 제품을 골라 ▲길이 조절부 압축강도(3단으로 늘린 스틱을 수직으로 눌렀을 때 밀려들어 가지 않고 견디는 정도) ▲손목걸이 하중강도 ▲편심하중 강도(휘어지지 않고 버티는 정도) ▲무게 등을 측정했다.

조사결과 레키(P 소프트라이트 AS)는 길이조절부 압축강도(3215뉴튼(N))와 손목걸이 하중강도(1715N)가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컸고, 편심하중 강도(283N)는 보통 수준을 보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다만 무게(246g)가 세 번째로 무거웠고 가격(개당 6만450원)도 비싼 편이었다.

네파(스피드업 라이트)는 손목걸이 하중강도(1455N), 편심하중 강도(304N)가 우수했으나 길이 조절부 압축강도(820N)가 세지 않았고 무게(211g)도 가볍지 않은 편이었다. 가격은 개당 4만8300원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이밖에 노스페이스(NFN92C03) 라푸마(AIRLITE II) 블랙야크(선샤인스틱)는 레키(P 소프트라이트 AS)와 비교해 가격은 1만 원정도 비쌌지만 품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효순기자 hs1@metroseoul.co.kr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SK그룹 최종현 회장 타계

1998년 8월 26일 SK그룹의 2대 회장으로 SK를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가운데 하나로 키운 최종현 회장이 6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73년 창업주이자 형인 최종건 회장이 작고 경영권을 이어받아 ...

얼굴 가리는 '딸'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전효선 교수가 취재진을 발견하자 황급히 차를 돌린 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뉴시스

이번주 아들딸 줄소환?

검찰, 전두환 조카 이재홍씨 계좌압류 이어 직계가족 소환 조사 초읽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전씨의 직계 가족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25일 전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 비자금 수십억원이 흘러들어 간 것으로 의심되는 이씨의 개인명의 계좌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조경업체인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제 검찰의 다음 타깃은 전씨의 차남 재용씨와 장남 재국씨, 삼남 재만씨, 딸 효선씨 등이다.

재용씨는 외삼촌인 이창석씨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49만5000㎡를 자신이 보유한 삼원코리아, 비엘에셋 등을 통해 편법으로 증여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오산 땅을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불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재용씨와 1인씨 포탈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재용씨 가족이 지분을 갖고 있는 비엘에셋, 삼원코리아, 웨어밸리 등의 설립·운영 자금으로 비자금이 유입됐거나 자금세탁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 중이다.

재국씨는 시공사, 허브빌리지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임, 탈세한 의혹과 더불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매입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블루아도니스)를 통해 비자금을 은닉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재만씨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와이너리(와인 양조장) '다나 에스테이트'와 고가 주택의 매입자금 성격을 놓고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된 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효선씨는 어머니 이순자씨 명의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땅을 외삼촌인 이창석씨를 통해 2006년 증여받은 의혹과 서울 연희동 빌라를 이창석씨의 아들을 통해 사들여 비자금으로 매입한 의혹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씨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한 달이 지났고, 광범위한 주변인들 조사를 통해 기반을 단단히 다진 만큼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 대한 소환은 시간문제라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적지 않다.

/김현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뉴스&뉴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청구 올해만 17건

● 검찰이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화학적 거세 청구에 나서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5일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모두 17건의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7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7건)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화학적 거세 청구의 전 단계로 일선 검찰청이 치료감호소 등에 감정유치를 신청한 건수 역시 지난해 24건에서 올해 1~7월 3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로,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 위험성있는 사람이다.

전국 초·중·고교 최근 5년간 370곳 폐교

●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370개교가 폐교됐다.

교육부는 25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에 따라 2008~2012년 학교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초·중·고수는 370개교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전북에서 초·중·고 113개교가 문을 닫아 폐교 학교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96개교), 전남(46개교), 강원(42개교) 등 농산어촌이 분포된 도지역에서 문을 닫은 학교가 많았다. 같은 도지역이지만 제주도는 폐교 수가 2개교, 경기도는 8개교에 불과했다.

"내년에 또 오자" 폐장을 하루 앞둔 25일 강원도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illegible] 뒤뒤위를 [illegible]고 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26일 대부분 폐장한다 /연합뉴스

4년 만에 태풍 없는 여름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이 4년 만에 태풍 없이 지나갈 전망이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illegible]월부터 발생한 태풍 14개 중 이달 말까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태풍은 하나도 없다.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난 6월 날 제4호 태풍 '리피(LEEPI)'가 접근했으나 영향은 미미했고 제13호 태풍 '페이파(PEWA)'의 경우도 27일 오전 일본 도쿄 동쪽 약 2340㎞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실상 올여름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태풍이 한 개도 없었던 셈이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부터 지난해까지 월별 태풍 발생 횟수를 보면 8월이 1.21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월(0.9회), [illegible]월(0.2회), [illegible]월(0.03회) 순이었다.

올해 우리나라가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난 이유는 강한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중국 남부 지방부터 한반도까지 뒤덮으면서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빛 1호기 정기점검 돌연 연기

원전당국이 전력난에도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한빛 1호기(발전용량 95만㎾)의 정기점검을 발표 하루 만에 연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발전소는 26일로 예정된 한빛1호기의 계획예방정비를 전력수급사정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이를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전은 통상 1년 6개월 가동하면 핵연료인 플루토늄이 고갈되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하고 연료를 보충해줘야 한다. 이 기간에 연료보충은 물론 비상 디젤발전기 정밀 점검 등 주요 기기와 계통에 대한 점검이 한꺼번에 이뤄지며 소요 기간은 60일 정도다. 특히 원전 안전 운용을 위한 필수 과정인 계획예방정비는 관련법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전력난을 이유로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무원칙한 태도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김현준기자

현대차 노조 파업·잔업거부 등 생산차질액

역대 최대 2조원대

올해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손실 규모가 역대 최대인 2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 들어 노조의 파업, 주말 특근, 잔업 거부로 발생한 생산 차질액은 2조203억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20일, 21일, 23일 등 세 차례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평일 잔업과 24일 주말 특근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1만5625대를 만들지 못해 3203억원의 생산 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 상반기에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 3~5월 총 12주에 걸쳐 주말 특근을 거부했다. 사측은 이 기간 동안 1조7000억원의 생산차질을 입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년 만 61세 연장, 노조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등을 포함해 180여개에 달하는 요구안으로 인해 노사 이견이 큰 상황이다.

노조는 26일에도 조별 4시간, 하루 8시간의 부분파업을 실시한다. 27일에는 사측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10여차례 파업을 벌여 역대 최대 수준인 1조7048억원의 생산차질을 기록한 바 있다.

/[illegible]

'추억의 책가방' 반가운 반총장 2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보낸 충북 충주시 문화동의 고택에서 고교시절 들고 다녔던 책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반 총장은 유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귀향 휴가를 이용해 지난 22일 방한했다. /연합뉴스

지역 콜택시 콜비 부과 추진

시, 이용 편의성 위해 1콜당 1000원이하 징수 등 검토

부산지역 콜택시의 콜 서비스 수수료 징수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콜서비스에 대해 '콜 통신비·콜센터 운영' 비용이 콜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콜택시 서비스 수수료 징수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콜택시 운영실태의 문제점은 일부 콜택시 운전자들이 단거리 이용승객에 대한 배차 기피와 출·퇴근 시간대에 콜서비스 거부로 인해 민원이 많다. 또 법인택시의 콜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을 놓고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 간에 갈등이 있으며, 콜 시스템 유지비용에 비해 수입증대 효과가 크지 않아 콜서비스에 소극적이다.

현재 콜택시(콜센터)는 총 10개 콜센터 1만3809대이며 전체 택시 2만5051대의 55.1%이다.

시 도별 콜 수수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브랜드 택시의 경우 서울은 택시요금 1만원 미만시 1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도 1000원씩 택시 호출료(콜비)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콜 수수료를 '등대콜·부산콜' 등 브랜드콜은 택시요금이 9000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 1000원, 9000~9900원인 경우 요금과 수수료 포함해 1만원을 받는 것과 1콜당 1000원 이하 징수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콜 수수료가 징수되면 콜서비스 거부 해소되고 콜택시에 대한 이용 편리성을 높여 이용객의 서비스 만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승객은 콜택시 서비스 수수료 징수가 택시요금 추가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차현우기자 cyc one@metroseoul.co.kr

/뉴시스

캠퍼스 이모저모

건축학교육인증원 5년 인증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획득

동의대학교 건축학과(학과장 염재혁)가 지난 31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Korean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심의 결과 최고등급인 5년인증 유효기간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동씨 건축사 예비시험의 면제와 함께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인 실무수련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며 이미 졸업한 학생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부경대 학사 등 1795명 졸업

부경대학교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학사 1461명, 석사 281명, 박사 53명 등 총 1795명이 학위를 받았다.

경성대 후기학위 수여식

경성대학교(총장 송수건)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콘서트홀에서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학사 570명, 석사 124명, 박사 17명 등 총 711명이 학위를 받았다.

폴리텍대 '기계가공' 수료식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학장 도제윤)는 지난 23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컴퓨터를 응용한 3D기계가공'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백로가 보여요 23일 울산 태화강에서 백로 생태학교 참가 학생들이 국내 최대 백로 번식지인 삼호대숲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학교폭력 줄이는 '카톡 소통'

부산경찰 '빨리요 친구 117' 개설에 상담 증가 서비스 확대

학교폭력 상담과 예방에 휴대전화 메신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청장 신용선)은 대다수 학생들이 사용 중인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활용, 학교폭력 상담 및 홍보 활동에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서부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 학교폭력 상담창구(010-825-79-117, '빨리요 친구 117')를 개설했다.

카톡 상담창구는 현재까지 친구 7500여 명이 등록됐고, 하루 평균 50건 정도의 학교폭력 신고 및 각종 고민상담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서부경찰서의 카카오톡 학교폭력 상담창구가 큰 효용을 얻자 올 초 부산시내 15개 경찰서로 이 서비스를 확대했다.

각 서별로 카톡 전담경찰관을 지정·확대 시행해 현재까지 총 1만 9200여 명의 친구 등록과 4875회 상담을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2학기에도 학생들의 감성에 맞고 접근성이 쉬운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 상담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또 각 서별로 자체 선도프로그램을 마련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학교폭력 없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학생 자살률 해마다 줄어든다

부산지역 학생 자살률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1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7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2009~2012년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자살현황'을 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13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지역별 자살 학생 수는 서울이 24명으로 최다였고, 경기 21명, 인천 11명, 경북 10명, 대구·광주 각각 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부산지역 자살 학생 수는 지난 2009년 21명, 2010년 18명, 2011년 12명, 2012년 7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학생들이 자살을 한 가장 큰 이유로는 가정불화 및 가정문제가 56명(4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울증·염세비관 23명(16.5%), 성적불량·성적비관 16명(11.5%), 이성관계 14명(10.1%), 신체결함·질병 4명(2.9%), 폭력·집단괴롭힘 2명(1.4%) 등이 뒤를 이었다.

학년별로는 고등학생 88명, 중학생 48명, 초등학생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부산의 경우 초등학생 자살은 없었다.

국제코미디페스티벌 김준호 홍보 나섰다

개그맨 김준호(38)가 23일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돌며 '부산 국제코미디페스티벌(BICF)'을 알렸다.

BICF 집행위원장인 김준호는 이날 자원봉사단, 대학생기획단 등 40여 명과 함께 서면, 해운대, 광안리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부산시민과 관광객 등 100만명에게 BICF 홍보물과 '스마일 캔디'를 전달하며 '개피 바이러스'를 전파, 부산 바다를 웃음 바다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스마일 캔디란 만병통치약인 웃음을 담은 마법 캔디다. BICF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는 특효약이며,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특히 이른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된 고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물론,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대학생들 모두 지친 기색 없이 알짝는 등 '웃음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시민과 관광객들 역시 웃음으로 환영했다.

BICF는 29일부터 9월1일까지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열린다. KBS 2TV '개그콘서트', SBS TV '웃찾사', tvN '코미디 빅 리그', MBC 에브리원 '무한걸스' 등 방송사를 망라한 개그맨들과 해외 유명 코미디언들이 참가한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 인 겸 편집인	김 공 호
사장 편집인	김 용 락
편 집 국 장	조 인 호
부산지사장 직대	권 택 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11

2001년 5월 3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아 00006

맞춤인재 육성… 면접실시 학과 늘렸다

BIST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학은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에도 교육부가 발표한 201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에서 2000명 이상 졸업자를 배출하는 대형 전문대학 가운데 취업률 부산지역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홍처장은 '취업률격주의 지름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입학에서 취업은 물론 계속적인 지도로 대한민국 직업기술교육의 발전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용인(사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입학관리처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수시 전형의 특징은?

"우리대학은 우수 인재선발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산업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직업성적 보다는 전공 관련자로서 자질을 겸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면접 실시 학과를 기존 4개 학과에서 15개 학과(계열)로 확대 실시한다. 기존 쥬얼리디자인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간호과 4개 학과에서 자동차계열, 전자통신과, 소방안전관리과, 토목과, 산업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패션연출디자인과, 쥬얼리디자인과, 호텔관광경영과, 한중비즈니스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간호과, 미용계열, 유아교육과 등 15개 학과(계열)로 크게 확대했다."

-유망학과를 소개해달라

"꾸준히 늘어나는 중국과의 교류 무대에서 활약할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한중비즈니스과는 부산과기대가 추진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 글로벌 현장학습시업' 참여 학과이다. 우수 학생들의 해외인턴십 파견을 통해 현지 적응력을 높여 향후 실제 해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그 밖에도 국내 기업, 중국 진출 기업과 무역회사, 국제회의 전문가 등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신입생을 위한 장학혜택은 어떤가?

"전년도 해외연수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혜택으로 수험생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내신등급 3.99등급 이내자는 모두 '내신우수장학금'을 지급해 우수인재 확보와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장학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만학도와 재직경력자 전형 및 산업체 전문학사 전형은 매학기 수업료의 30% 면제 혜택을 줘 만학 하는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 주고자 한다."

-수시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당부 한 마디 한다면?

"올해부터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계열)를 크게 늘렸다. 내신성적, 출석 등 수치로 나타나는 평보 보다는 지원 학생의 잠재력과 적성, 인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가 크게 확대됐다. 조금 낮은 학생부 성적을 가진 학생도 면접고사 준비를 충실히 한다면 학생부 성적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 성적이 부족하다고 겁을 먹고 지원을 포기하지 말고 철저히 면접에 대비해 도전해보길 당부한다."

수시전형서 자동차계열 등 15개 학과로 지역 대형 전문대학 중 취업률 1위 차지

주목! 부산과기대 이 학과

■ 기계계열

1977년 개교와 함께 개설된 기계계열은 36년 동안 7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대한민국의 기계 자동차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대학 대표 브랜드 특성화 학과로 선정돼 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에 따라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2013학년도 중소기업 계약학과(융합기계과) 사업에 선정됐다.

■ 패션연출디자인과

타 대학과의 차별화된 뷔테 패션상품 제작뿐만 아니라 상품 연출 중심의 실습과정을 통해 의류산업에 필요한 패션지식과 기술을 고루 갖춘 패션연출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바로 패션연출디자인 학과다. 학생의 90%가 졸업 전 국가공인 스타일리스트, 샵마스터, VMD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캡스톤 디자인과정을 통하여 실무와 똑같은 디자인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유수 패션디자인업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로도 진출하고 있다.

수시 선발 정원 90% 3회 복수지원 가능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201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의 90%를 모집한다. 수시모집의 경우 특별전형만 모집하며 특별전형으로는 인문계/독자전형, 전문계전형이 있다.

인문계전형은 인문계고교 졸업(예정)자, 종합고등학교 전문계 과정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로 학교생활기록부 100%를 반영한다.

전문계전형은 전문계열고교 졸업(예정)자, 종합고등학교 전문계 과정 졸업(예정)자 및 일반계 고교 1년 이상 직업과정 교육 이수자와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연계교육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모든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중 교과성적 70%와 출결 30%를 반영한다. 면접실시학과의 경우 교과성적 50%, 출결 30%, 면접 20%를 반영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모든 모집전형(정원내 외 및 타 특별전형)간 3회에 한해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수시1차 접수는 오는 9월 4~16, 수시2차는 오는 11월 11~20일이다.

日 원전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부산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고농도 수증기 유출과 관련 방사선(능)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부산시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고농도 수증기 유출과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가 부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수입 농수산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구축을 위해 오는 29일 오후 3시 부산시청 15층 재난상황실에서 '환경방사선(능) 감시 분석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부산식약청,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정부 및 전문기관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기관별 주제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지역 환경방사선 및 유통 가공식품, 농·수산물, 상수도 등에 대한 기관별 감시·분석결과 공유하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먹거리 안전확보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방사선(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방사선 감시결과(부산시) ▲식품환경 등 분석결과(보건환경연구원) ▲원수 및 상수 분석결과(상수도사업본부) ▲일본산 수입건조 농·임산물, 가공식품 등 검사결과(부산식약청) ▲수 출입 수산물 검사결과(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환경방사능 조사결과(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주변 환경조사결과(고리원자력본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자체 환경방사선 감시망을 지난 연말 12곳에 설치한데 이어 이달 초 8곳을 추가해 총 20곳을 운영한다.

한국노총 새누리 간담회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6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부산시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안시업, 노동현장,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전국 최초 노동단체 발굴 사업인 부산청년고용 3% 더 늘리기 실천운동과 현 정부의 고용률 70% 추진전략에 대한 실천방안 등 지역경제 발전에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재 희생자와 장애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대상 사회공헌사업과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질의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그룹 중 SK만 시총 늘어

올해 들어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 중 시가총액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 SK가 유일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쇼크'에 시총이 46조원이나 줄었고 한진그룹도 8개월여 만에 시총의 3분의1이 사라졌다.

2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0대 그룹 소속 90개 상장계열사의 시가총액은 총 630조9000억원(23일 종가 기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696조5000억원보다 9.4%(65조6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가 7.9% 하락한 것과 비교해 1.5%포인트 더 쪼그라들었다.

그룹별로는 삼성(-46조원)이 가장 많이 감소하고 LG(-6조6000억원), GS(-2조9000억원), 롯데(-2조8000억원) 등이 뒤를 따랐다.

SK만 유일하게 그룹 시총이 늘었다. 상장 계열사 대다수의 주가가 부진했으나 SK텔레콤이 연초 대비 38.2%(4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시총을 끌어올렸다.

/김현정기자 hjkim1@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4	20	23	29	45	28

등위	당첨내용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916,697,21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7,633,069
3등	5개 숫자 일치	1,562,431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환경·교육·편의 '3박자 아파트'

한화 천안 청수 꿈에그린

주말 2만명 견본주택 방문 "종합행정타운 조성…가치↑" 27일부터 청약접수 받아

한화건설이 천안 동남부권의 신흥주거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청수지구에 지난 23일 '천안 청수 꿈에그린' 668가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80-8번지(신방동 홈플러스 맞은편)에 문을 연 모델하우스에는 지난 주말 사흘간 2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개장 첫날 5000여명의 인파가 찾았고 토요일엔 8000명, 일요일엔 7000여명이 방문했다.

한화건설 측은 "실속형 평형대의 합리적 분양가 등으로 인근 천안과 아산 지역 거주민은 물론 서울 강남, 성남 분당 지역의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보였다"며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토 중인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의 정책 기대감에 전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천안 청수 꿈에그린은 지하 2층 지상 24층 아파트 7개동 규모이며 총 668가구 단지로 조성됐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기준 84㎡ 416가구, 85㎡ 24가구, 90㎡ 28가구로 공급된다.

천안 청수 꿈에그린이 위치한 청수지구는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종합행정타운이 조성될 예정으로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먼저 천안에서 처음으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해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또 녹지 비율이 27.4%로 높아 도심 속 자연[illegible]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청수지구 내 5개 초·중·고가 위치하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갤러리아백화점 등도 자광으로 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다.

천안 청수 꿈에그린의 모든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판상형·탑상형 혼합구조로 환기, 채광, 일조권 확보와 및 조망이 우수하다.

단지 내 체험형 쉼터, 놀이터 2개소, 녹화 운동공간, 테마 휴게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1층에다 보행자를 위한 필로티를 구성했다. 주차장 시설은 모두 지하에 배치했다.

관심이 가장 높은 86㎡C형은 가구 분리형으로 현관을 중심으로 2세대가 분리해서 살 수 있도록 했다. 자녀방 두 곳의 벽체를 가변형으로 계획해 유연에 따라 각각의 주방과 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별 주택형은 안방과 주방의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욕조가 들어간 화장실을 넣고 주방 곳곳에 수납장을 배치했다. 전용 발코니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건설 신완철 상무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행정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향후 우수한 생활·교육 환경이 기대되며 사통팔달의 교통환경도 갖췄다"며 "충청남도의 핵심도시로 부상 중인 천안을 대표하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일정은 오는 27일(특별), 28일(1순위), 29일(3순위) 다음달 3일에 걸쳐 청약접수를 받고 9월 4일 추첨과 당첨자 발표를 한다. 당첨자 계약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2015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천안시 신방동 홈플러스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분양문의 (041)571-8200

/김형기자 hjkim@metroseoul.co.kr

실속파라면 '캐시백 카드'가 딱!

김민지 기자의
짠순이 주부 경제학

●내게 맞는 체크카드 고르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재테크 혼돈기'에는 일단 씀씀이부터 줄여야 한다. 매달 월급으로 받은 돈이 어디로 새는지 가계부에 꼼꼼히 기입하고, 지름신을 막는 게 중요하다. 사실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이다. 매번 작심삼일로 포기하기 일쑤였다면 효과적인 씀씀이를 위해 '체크카드'를 추천한다.

나 역시 신용카드 혜택에 혹해 그동안 체크카드를 외면했는데, 웬걸 요즘엔 체크카드 역시 똑똑해졌다.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신용카드 만큼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나에겐 어떤 체크카드가 좋을까. 우선 카드 선택은 자신의 '취향'을 정확하게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인 학부모라면 학원비나 유치원비 같은 교육에 특화된 카드를 고르는 게 좋다. 대부분 카드에 '에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학원비 할인은 물론 토익, JPT, 텝스, KBS한국어능력시험 등 어학시험 응시료도 할인해 준다고 한다.

실속파 체크카드 사용자에겐 '캐시백' 혜택이 많은 카드가 바람직하다.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통장으로 돌려 받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이 카드가 제격이다.

교통에 특화된 체크카드도 제법 많다. 주유 할인의 경우 리터당 주중에는 50원, 주말에는 60원을 환급해주는 카드도 있다.

앞으로 쇠없는 신용카드 싹둑싹둑 잘라 버리지 말고 '체크카드'로 합리적이고 절제된 소비 습관을 키워보면 어떨까.

/김민지기자 mvu@metroseoul.co.kr

캠핑카 타고 고향 앞으로 롯데하이마트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1일까지 캠핑카를 타고 떠나는 추석, 그리고 여름 캠프행사를 진행한다. /뉴시스

주택구입자 지원 확대하고 월세부담 줄여주고

오는 28일 정부가 발표할 전월세 종합대책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을 생애최초 대출 수준으로 맞춰 6억원 이하의 주택에도 3%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줄 가능성이 높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최고 한도 1억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마이너스 전세대출' 상품도 조만간 출시된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나 세액공제 제도 신설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5억~6억원 이상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기자 hjkim@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코스닥
1870.19 (+21.04)	529.19 (+11.55)

금리	환율
2.96 (-0.03)	1113.50 (-6.50)

사금융 평균금리 年43%

사금융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평균 금리가 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조사한 '사금융 이용실태'를 발표했다. 전화조사 표본 대상자 5045명 가운데 등록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 개인간 거래를 이용 중이라고 응답한 138명(2.7%)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사금융 평균금리는 연 43.3%. 사금융 이용액은 1인당 평균 1317만원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52.7%로 등록 대부업체(38.7%)보다 14%포인트 높았다. /김민지기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부모님 살아계실 때 힘이 되어 드려야지 돌아가신 뒤에 보험금이 무슨 소용이죠?

-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1천만원 한도**(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 **치매간병비Ⅱ(중증치매) 3천만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골절 · 화상 치료비 50만원 지급**
  상해로 골절,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확정시 (치아파절 제외)
- **질병입원일당 첫날부터 2만원**(180일 한도)
-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각 2백만원**(최초 1회한)
  암 진단비Ⅱ: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하며,
  기타 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 **50~75세 가입**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AIG입니다"

명품부모님보험

- 3년단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3년 갱신 ...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최대 80세까지 ... 보험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1644-9896

월 보험료(1인당)

Active 보험금			치매간병비Ⅱ(중증치매)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50~80세	11,530		50세	[illegible]	1,860
			60세	3,380	[illegible]
			70세	[illegible]	40,020

골절 · 화상 치료비			질병입원일당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50~80세	3,030		50세	10,130	7,380
			60세	15,040	10,740
			70세	22,400	17,230

보장내역	연령	남자	여자
암 진단비Ⅱ	50세	2,000	2,470
	60세	4,100	3,0[illegible]
	70세	7,220	3,530
뇌졸중 진단비	50세	1,020	730
	60세	2,720	1,730
	70세	5,340	3,22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50세	270	80
	60세	580	110
	70세	750	400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만 조심해야 하나요? 보험료도 신경쓰셔야죠!

- **골절진단 · 수술 의료비용 · 화상진단 의료비용 1천 5백만원 한도**
  상해로 약관에 정한 골절진단 · 수술, 화상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 **암 진단비 2천만원 보장**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하며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기타 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무배당 Super 큰병이기는보험

- 5년단기 자동갱신 상품으로 연령증가와 위험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골절진단 · 수술 의료비용 · 화상진단 의료비용은 최대 80세까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최대 80세까지 보장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1577-6429

월 보험료(1인당)

골절진단 · 수술, 화상진단 의료비용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60세	13,230		30세	1,440	4,340	500	380	500	180
			40세	4,050	9,780	1,780	990	1,020	360
			50세	9,500	11,220	4,460	3,100	1,790	720

• 청약철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가입 후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보험계약자는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가입시, 상품설명서 약관 혹은 홈페이지 참조 www.aig.co.kr

AIG
더 좋은 내일

사회갈등 세계 2위 '불편한 진실'

정론탁설

유 병 철
<언론인>

설마 했던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주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 회원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1위인 터키는 종교적인 갈등 구조로 매우 특수한 사정을 안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민주주의 정부 효과성, 지니계수 변수로 사회갈등지수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0.72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터키가 1.27로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가 0.25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갈등구조로 우리나라는 연간 82조~246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갈등지수를 10%만 낮춰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5.4%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OECD 평균 수준만 돼도 GDP가 7~21%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일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지만 속내는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나라가 됐다. 해묵은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사 간, 이념 간, 공공정책 목표 간 갈등이 원만하게 관리되지 못해 물리적 표출이 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 갈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정치권은 늘 대립적이며 산업현장의 노사 관계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강성국가이다. 여기에다 전후 유일한 분단국으로 이념 간 갈등의 골을 키우는 중이다.

지금 앓고 있는 고질적인 갈등 구조를 물어내지 못하면 한국의 장래가 어둡다는 세계적인 지식인의 충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문제 제기만 할 뿐 실천 모드는 없다. 선진국들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갈등이 가장 적은 덴마크는 복지개혁으로 실마리를 풀었고 독일은 대연정과 미래협약을 맺어 해소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는 연방제로, 네덜란드는 사회협약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법치조차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타협과 중재의 길이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도덕성 회복운동 등 사회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도를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 여기에다 정치권이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만이라도 발전돼야 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살아나야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포토프리즘 **가을이 오네~**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였던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을 찾은 한 시민이 잘 익은 호박을 만져보고 있다. 하늘공원에 부는 시원한 바람이 1904년 이후 최악이라는 폭염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듯하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요즘 '꽃할배' 보세요?

뉴스룸에서

이 국 명
<경제산업부장>

요즘처럼 금요일 저녁을 기다려 본 적이 없었다. 주말을 앞두고 특별한 약속이나 거창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번 주에는 '할배'들이 어떤 좌충우돌 여행기를 보여줄지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듯하다. 지난 금요일에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 대만편'의 평균 시청률은 무려 7.1%(닐슨코리아)에 달했다. 1%만 넘겨도 히트작으로 분류되는 케이블 방송가에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인기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평균 연령 76세인 할배들이 유럽과 대만을 배낭여행하는 모습을 보며 '노년의 삶이 저 정도는 돼야지' 란 로망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실도 꽃할배와 비슷할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중위가구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가구비율)은 2011년 기준 약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끄러운 1위다.

통계청의 '2012년 고령자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령자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이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도 꽃할배들처럼 해외여행의 낭만을 즐기는 대신 폐지수집이나 노점상, 경비원과 같은 시간제아르바이트 등으로 고통받는 할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

물론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환경미화, 경비 등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그것도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전시 행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꽃할배의 주인공인 H4(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는 이번 종종 '이번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이런 여행을 감히 꿈이나 꿨겠냐'고 말한다. 아이돌들이 점령하다시피한 예능프로그램에 자신들을 들러리가 아니라 당당한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준 PD와 방송사에 무척 고마워한다.

역발상의 지혜를 엿보는 파격적인 전략이 프로그램의 인기는 물론, 꽃할배들에게 '뒷방 늙은이'가 아닌 100세 시대 당당한 주인공으로서의 자존심을 찾아준 셈이다.

정부도 글로벌 경제위기, 재정난 등과 같은 여건 탓만 할 게 아니라 역발상의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예능프로그램이라도 보고 배워라.

꽃할머니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그날도 꽃할머니는 언니와 함께 나물을 캐러 나갔다. 들판엔 아무도 없었다. 멀리서 커다란 트럭이 다가왔다. 군인 둘이 차에서 내리더니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차에 태웠다." 언니만이 아니었다. 동생인 꽃할머니도 차에 강제로 태워져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끌려간다.

"한쪽으로 강이 흐르고, 산비탈에 막사가 있었다. 막사 안에는 작은 방들이 칸칸이 들어 있었다. 끌려온 이 한 칸에 한 명씩 여자들은 잡아넣었다. 꽃할머니도 그 작은 방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군인들이 줄을 섰다. 하루에도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었다. 열세 살 꽃할머니의 아랫도리가 피로 물들었다." 1940년 13세 소녀였던 심달연 할머니는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로 납치되어 꽃처럼 피어나야 할 인생을 난자당하고 폐허처럼 버려진다.

전쟁에 동원된 도구의 하나로, 조선의 적지 않은 소녀들이 최소 4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주둔 일본군 위안부 가운데 90%를 점하게 된다.

이 거대한 범죄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일본은 지금 또다시 아시아의 제국이 되기 위한 수순을 밟으려 하고 있고, 한국은 이런 일본을 겉으로는 비난하면서도 미국에서 한·일 합동군사훈련으로 일본 수송기를 엄호하는 전투비행훈련을 했다. 이러니 일본의 우경화 주도세력이 한국을 어떻게 볼지 너무도 선명하다. 역사에 대한 반성은 이 나라에 더욱 절실한 것은 아닐까?

작가 권윤덕이 쓰고 그린 '꽃할머니'를 비롯해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이억배), '평화란 어떤 걸까'(하마다 게이코), '경극이 사라진 날'(야오홍),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다시마 세이조) 등 한·중·일 작가들의 공동기획물 평화그림책은 아시아가 갈망하는 평화감수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사계절', 일본의 '도신샤', 중국의 '이랑' 등 세 나라 출판사가 같이 낸 이 책들을 보면 국가의 탐욕을 넘어선 아시아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진실어린 마음과 만나게 된다. 책은 더 나올 계획이다. 원폭 피해지, 중일전쟁의 광상, 전쟁고아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한다.

하마다 게이코의 책 마지막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평화란? 너와 내가 태어나길 정말 잘됐다는 것.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친구를 멸시하고 겁탈하고 죽이는 평화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평화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다.

선입견에 우는 수돗물

특별기고

퇴근 후 집에서 수도꼭지를 튼다.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나온다. 문득 수도요금은 얼마일까 궁금해 아내에게 물어보니 한 달에 2만~3만원가량 나온다고 한다.

며칠 전 신문 기사에 따르면 수돗물 값은 ℓ당 0.619원이고 생수의 평균 가격은 ℓ당 1424원이다. 무려 2300배 차이다. 어떻게 싼 가격으로 수도사업이 유지될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평균 수도요금(619.3원/㎥)은 수돗물 생산원가(813.4원/㎥)의 76.1% 수준이다. 1000원어치 수돗물을 팔면 24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그 결과 2011년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부문 부채액은 1조82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03억원 증가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돗물 품질은 엉망일까? 오히려 세계적인 수준이다.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는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 155개 항목 수질검사에 합격했고, 2012년에는 미국 2대 수질 분석기관의 167개 수질항목 검사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다.

북유럽 국민들은 대부분 거리낌 없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한데 직접 음용률은 1~3%대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 맛이 없어서일까? 며칠 전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물맛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생수 35.3%, 정수기 물 32.5%, 수돗물 32.2%의 선호도로 조사됐다. 물맛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품질인 우리 수돗물의 맛의 차이는 분명히 거의 없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선입견이 있을 뿐이다.

/김주영 성지대 교수

연예가 소곤소곤

男톱스타 A 밤이면 밤마다 '럭셔리 파티'

▶하루 500만원 호텔서 모델과 즐겨

남성 톱스타 A가 매일 밤 고급 호텔에서 모델들과 화려한 파티를 즐긴다는 소문입니다. 파티를 벌이는 곳은 하룻밤 숙박 비용이 무려 500만원이나 하는 강남 한 호텔의 스위트룸인데요.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있고, 달리기를 해도 될 만큼 넓은 방이라고 합니다.

호텔 관계자와 목격자들을 통해 흘러나온 소문에 따르면 A는 바로 이 스위트룸을 1년동안 장기 계약하고, 밤마다 모델들을 초대해 흥청망청 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반응은 주위 사람들이 A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서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연예 관계자는 "A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은 호텔 1년 숙박 금액의 몇 배에 달할 정도로 많다. 또 평소 성격도 워낙 노는 것을 즐긴다"면서 "혈기왕성한 나이에 남들 시선을 피해 놀 곳을 찾으려면 호텔만큼 적당한 곳이 없었을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선미 "이상형은 차두리 선수"

여성미를 더해 솔로로 컴백한 원더걸스 출신 가수 선미가 이상형으로 축구선수 차두리를 꼽았습니다. 평소에는 천진난만해 보이고 개구쟁이같지만 자신의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 좋다는 것이 이유라는 데요. 거기다 근육질 몸매까지 지니면 금상첨화라고 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서른 살은 넘어야 되겠지만, 가급적 결혼도 빨리 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는 데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꼭 닮은 아이를 보고 싶어서랍니다. 엄마가 젊으면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다고 하는 데요.

놀라운 사실은 선미의 어머니는 이제 막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병헌과 동갑인 1970년생이라는 겁니다.

▶출신성분 다른 두 봉감독의 우정

영화계에 '봉감독'이 두 명 있는데요. 바로 '설국열차'의 봉준호와 29일 개봉 예정인 '아티스트 봉만대'의 봉만대입니다. 전혀 다른 출신 성분(?)의 이들이 의외의 우정을 나누고 있어 화제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설국열차'의 대히트로 바쁜 와중에도 20일 서울 중구의 한 복합상영관에서 열린 '아티스트 봉만대'의 VIP 시사회를 찾아 눈길을 모았습니다. 상영이 끝난 뒤에는 "정말 재미있게 봤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주연과 시나리오를 겸한 봉만대 감독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라면 기꺼이 출연하겠다"고 화답하며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영화계의 한 관계자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봉준호 감독과 에로 비디오로 출발한 봉만대 감독은 얼핏 아주 다른 성향을 지닌 것 같지만, 비슷한 연배(봉준호 감독은 44세, 봉만대 감독은 43세)로 통하는 구석이 은근히 많은 사이"라며 "희귀 성(姓)이란 점도 [illegible] 가까워진 이유"라고 귀띔했습니다.

/연예부

또디 by 정연식 <724>광고모델

박해일·신민아 '경주'서 호흡 맞춘다

박해일과 신민아가 스크린에서 코믹 멜로물로 호흡을 맞춘다.

이들은 장률 감독의 새 영화 '경주'에 남녀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경주'는 죽은 친구와의 추억을 더듬어 경주를 찾은 최현(박해일)이 우연히 만난 찻집 주인(신민아)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으며 1박2일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장률 감독은 '망종' '중경' '두만강' 등의 작품으로 칸, 베를린, 서에들국제영화제 등 해외 유수 영화제에 여러 차례 초청된 작가주의 감독이다. 이달 말 크랭크인해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마지막 4중주' 상영 한달만에 8만 돌파

예술영화 '마지막 4중주'가 상영 한 달여만에 8만 관객을 돌파했다.

25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개봉된 이 영화는 이달 24일까지 8만536명을 불러모은 것으로 집계됐다.

8만 관객 돌파까지 예술영화로는 최단기간 기록으로, 소 [illegible] 개봉 예술영화들 가운데 '아무르'(6만345명)를 제치고 최다관객 작품이 됐다.

날씨

8/26月 해뜨는 시각 05:57 해지는 시각 19:10

지역	기온
서울	22/32
청주	22/32
대전	21/31
전주	23/32
광주	23/31
제주	25/30
강릉	21/31
울릉도	21/27
대구	22/32
포항	22/30
울산	22/30
부산	23/30

심혈관계 고위험자들은 무더위가 지속되면 뇌졸중,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름철엔 건강관리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식중독 발생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2		7		
	4				8	2		
8		1	6					
		3						5
		8	9		7	3		
1						4		
					3	5		2
		5	1				7	
		6		8				3

					2	1	6	
4			1				7	5
2								
5	1			3	8	4		
		8	9	7			1	3
								6
1	8				9			4
	9	6	3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보누스
'엔사 스도쿠 플래티넘'
(아디돔 리오스 지음)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임계선의 모놀로그

한 친구는 외출할 때 너무 소박하다 못해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서 나를 한숨짓게 한다. "이게 뭐냐. 아무리 그래도 좀 꾸미고 다녀라"라고 잔소리를 하면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라며 자연주의자인양 무시한다. 개인의 자유지만 그건 소탈한 게 아니라 그냥 게으르고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백화점 매장에서 점원의 대우가 시큰둥하다고 상처받으면 곤란하다. 또 다른 친구는 주변 사람들을 자기 식대로 통제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지 좀 말라고 하면 "난 원래 곤대야. 뭐 어때. 이 나이에 꼰대인 게" 이런 나의 곁에 계속 남아주는 사람들의 전화번호기지"라며 호쾌하게 말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눈물같이 좋아하거나 그녀 때문에 괴로워한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것처럼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누군들 예외일까. TV채널이 많아지면서 내게도 이런저런 출연 섭외가 온다. 섭외 오면 대개 다 거절한다. 계절마다 아이 옷 바꿔줘야 할 때만 암게처럼 슬그머니 일회성으로 알바만 한다. 겉으로는 "다른 출연진들과 리액션 맞추는 게 버겁다. 원치 않은 방향으로 편집되는 것이 싫다" 라고 하지만 그보다 진심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 곳에 가는 것이 번잡하고, 방송작가들의 태도가 섭외 전후 다른 것에 상처받고 무엇보다도 내가 방송을 잘 못할까봐, 텔레비전에 안 예쁘게 나올까봐 두려운 게 제일 컸다. 방송은 프리랜서에게 손실보다는 하기에 따라 이득이 더 큰데도 난 그저 겁먹고 '난 원래 TV 잘 안 나가' 같은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네 자신을 잃지마' 같은 말들은 자존감을 지탱시켜주는 참 좋은 말들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 이것을 '이게 나야, 어쩔래?' 식으로 제멋대로 해석해서 변명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있는 그대로의 나'는 실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나'로 원해야 되지 않을까.

/칼럼니스트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saju008.com

영업 안맞아 다른 업종 구직중 다음달 직장운 열려 취업 가능

해디디워둥사부 85년 12월 27일 음력 저녁 8시에서 8시반

Q 대학 졸업 후 두 곳의 직장에서 영업직으로 일했습니다. 스펙이 부족해 성급히 취업했던 데다 적성에도 맞지 않아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자의 꿈이 있어서 교육도 받고 계속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A 신의가 깊고 사무처리가 꼼꼼하여 도와가 원대한 새운 계획은 결국 미뤄내는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地支)에 휴살(休殺)과 형살을 갖고 있어 신상에 급격한 변동이나 악운이 올 수 있습니다. 기술계통이나 학원과 인연이 있으며 9월 직장운이 열리므로 현재 일에 매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운이 좋을 때는 사업이 큰 발전을 하지만 운이 하강하면 순간에 내리막을 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좋고 재치가 있지만 이가 적인 성격도 있어서 타인에게 이해타산적이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11~12월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주변에 험담을 하지 않고 말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 이성관계에도 유의하십시오.

딸이 언제 정규직 합격할까요 연말에 시험보면 충분히 가능

딸원이이 여자 88년 8월 18일 음력 오후/남자 94년 12월 26일 음력 오전

Q 딸이 현재 은행 비정규직입니다. 최근 시험을 보았는데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도전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들은 고3 이라 대학 진로를 앞두고 고민이 됩니다. 어느 과를 선택해야 할까요?

A 딸이 잘 되거다 벽에 부딪칠 때면 다시 모멘텀을 찾고 싶어합니다. 사실 이런 때가 중요합니다. 딸이 단뒤 실망하기보다는 무능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자신을 감추고 싶은 심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님은 대재다능하며 인안서시(人因成事)의 보람을 만끽합니다. 다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인연실지(人因失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무를 성조각으로 깎아내는 모습으로 이것은 인격을 다듬는 형상이고 성공의 비결은 인내에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충동적으로 움직이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운이 다소 미약하지만 11~12월에 시험을 한다면 합격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드님은 다시 상담 신청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면재 '사주 속으로'란 음력/양력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26일 (음 7월 20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순리 따라야 무리 없다. 60년생 겉만 화려한 실속 없는 카드는 버려라. 72년생 용기 있는 사람만이 뜻이 된다. 84년생 엄밀 한 그림자 사라지니 햇빛이 쨍.

소 49년생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61년생 책임질 일 늘어난다. 73년생 상사와 부하의 완충 역할 신경 써라. 85년생 애정운 길해 멋진 이성과 마주친는다.

호랑이 50년생 실수 덮으려다 망신당한다. 62년생 남들 눈치 볼 때 먼저 나서라. 74년생 한 가지 스타일 고집하면 위험 자초. 86년생 골칫거리였던 상사가 떠나는구나.

토끼 51년생 아랫사람 허물은 덮어줘라. 63년생 돈 쫓다보면 일 성공하기 어렵다. 75년생 정상에 선 선수처럼 리드하라. 87년생 우연히 나도 몰랐던 재능 발견한다.

용 52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게 된다. 64년생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것. 76년생 과욕 부리면 어처구니없는 실수 부른다. 88년생 개성보다 조직 문화를 우선하라.

뱀 53년생 경솔한 언행은 신뢰에 치명타. 65년생 가뭄에 단비 내린 격. 77년생 고집 적당히 부렸으면 양보의 미덕을 보여줘라. 89년생 궁하면 새 길을 찾게 된다.

말 42년생 생각지도 못한 공돈 생긴다. 54년생 운전대 가능한 한 잡지 마라. 66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행운 따른다. 78년생 관재수 있으니 시비 무조건 피하라.

양 43년생 자녀 돕고 싶으나 마음만 앞서니 답답. 55년생 모임에 가면 주목 받는다. 67년생 아랫사람의 칭찬은 100% 믿지 말라. 79년생 최선 다하면 하늘도 돕는다.

원숭이 44년생 과한 욕심은 이루기 어렵다. 56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잡아라. 68년생 피곤한 몸은 달콤한 성과가 보상해 준다. 80년생 연인의 기념일 꼭 챙겨라.

닭 45년생 좋은 말 하고도 욕 먹을 수도. 57년생 변명이 길면 신뢰 얻지 못한다. 69년생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 처진하구나. 81년생 앞만 보고 달려야 실속이 많다.

개 46년생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다. 58년생 변수 많으니 끝까지 긴장하라. 70년생 여우 피하니 호랑이가 나타난 격이다. 82년생 개성이 너무 강하면 왕따 자초.

돼지 47년생 고민이 해결되 만사 편하구나. 59년생 걱정했던 문제 해결된다. 71년생 고민은 공개해 털면 효과 만점. 83년생 귀인을 만나 목표를 업그레이드 한다.

영웅느낌 뺀 구조대원 인간적인 나를 담았죠

영화 '감기' 장혁

배우 장혁(37)이 생애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300만 관객을 향해 가고 있는 '감기'로 영화계 활동 15년 만에 자신의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또 데뷔 후 처음으로 고정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MBC '일밤 - 진짜 사나이'가 일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의 시청률 선두를 독주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진짜 장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데뷔 16년차… 흥행갈증 씻어

1998년 '짱'으로 영화에 데뷔한 그는 많은 작품에 출연하면서도 흥행 갈증은 씻지 못했다. 최고 기록은 2년 전 하정우·박휘순과 함께 한 '의뢰인'(240만명)이었다. "흥행도 중요하지만 처음으로 저를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작품에서 인형극에서 인형을 조정하는 사람처럼 연기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인형이 돼서 구조대원 강지구라는 인물에 저를 담아냈죠. 김성수 감독님은 각색이 가능하니 각 상황에 따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직접 써보라고도 주문했어요."

작품 300만 관객 질주중
영화·예능 두 토끼 잡아
복싱으로 집중력 키워요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관객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도록 영웅적인 면을 배제하고 무조건 착해보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촬영 전 실제 구조대원들과 생활하며 직업적 사명감 이상의 끈끈한 동료애를 느꼈고, 이런 부분까지 담아내려고 했다. "김 감독님과는 '영어완전정복' 이후로 10년 만에 만났어요. 감독님은 작품 스타일처럼 현장에서도 엄청난 카리스마를 지닌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배우에게는 최대한 자유를 주시죠. 직접적인 지시 없이 자유롭게 해보도록 한 뒤 오케이 사인을 주기 때문에 강지구라는 인물이 더욱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진짜 사나이' 모습처럼 단련

TV는 그의 진짜 모습을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매달 1주일씩 부대에 들어가 현역 군인들과 똑 같은 생활을 하다보니, 대본도 없는 상황에서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 "곧 40대가 되는데 좀 더 넓어지고 꽉 찬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계속 비어 있는 느낌이었죠. 스물여 살에 입대해 30대를 군에서 보내던 때를 생각하니 당시에는 하루하루를 꼭꼭 다지가며 지냈던 기억이 났어요. 강원도 GOP에서 근무하던 당시의 끈끈한 동료애와 미래에 대한 절실한 고민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죠."

그동안 예능 출연의 전제 조건이 '김종국과 함께 나가는 것'이었을 만큼 극도로 꺼렸다. 친분이 없는 출연자들과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 했지만, '진짜…'는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다. "체험 삶의 현장'과 바슷해 몸으로 부딪히는 순간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자신이 쓴 책의 제목인 '열혈남아'란 별명답게 평소에도 '진짜…' 속 모습처럼 자신을 단련하고 인내심을 키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절권도 등 각종 무술을 섭렵했고 요즘은 복싱에 푹져 있다. "링 위에 오르면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없는 상황들과 부딪히죠. 정신과 육체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집중력을 키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몸을 쓸 수 있고, 연기할 수 있는 작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사진/비둘기라조드픽처스 디자인/김미향

star bag

남편과 돈 문제로 이혼 소송

기수 정수라가 파경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성 월간지의 최근 호에 따르면 정수라는 금전적 문제로 남편인 사업가 장모씨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변진진의 소개로 만나 2006년 6월 결혼했다.

美서 녹음… 가을 새 앨범 발매

기수 이승환이 24일 공식 팬카페에 올린 글로 올 가을 발매 예정인 새 앨범 작업 소식을 전했다.

이승환은 "미국에서의 녹음은 순조롭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주 새롭다. 그래서 더 두렵다. 역시 마니악한 음악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웨딩화보 촬영차 스페인 출국

예비부부 지성(왼쪽)과 이보영이 웨딩화보 촬영을 위해 지난주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지성과 이보영은 현지에서 닷새간 화보를 찍을 계획이다. 지성과 이보영은 다음달 27일 화촉을 밝힌다.

'섬마을 쌤'서 영어교사 맡아

호주 출신 방송인 샘 해밍턴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어 교사로 나선다.

케이블 채널 tvN은 "다음달부터 방송될 새 프로그램 '섬마을 쌤'에서 해밍턴을 포함한 외국인 4명이 4박5일동안 섬마을 주민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따뜻한 웃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웃는 모습도 닮았네!' 24일 CCM 가수 유은성과 결혼식을 올린 배우 김정화의 웨딩 사진이 공개됐다.

▶ 미소가 닮은 두 사람 백년해로하세요.

/박진환기자

주연 아이유 '절반의 성공'

'이순신'서 감성연기 호평 속
전작 이하 시청률 장본인 지적

아이유가 절반의 성공으로 연기자 주연 데뷔를 마쳤다.

아이유가 주인공 이순신 역으로 나섰던 KBS2 주말극 '최고다 이순신'이 25일 50회로 막을 내렸다. 마지막회는 이순신이 친엄마 송미령(이미숙)과 화해하는 등 등장인물들간의 갈등이 해소되며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아이유는 이번 드라마에서 첫 주연이라는 주위의 우려를 씻고 20% 이상의 시청률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KBS2 드라마 외 조연이 연기 경력의 전부였지만 친엄마와 키워준 엄마와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아파하는 감성 연기를 기대 이상으로

펼쳤다는 호평을 받으며 '연기돌'로도 인지를 넓혔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극이 이순신의 성장기를 보여주겠다는 조기 기획 의도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면서 캐릭터를 향한 시청자들의 뭇매를 주연인 아이유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40%를 넘겼던 전작 '넝쿨째 굴러온 당신'과 '내 딸 서영이'와 비교할 때 떨어지는 시청률의 장본인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드라마 시작 전인 지난해 말 슈퍼주니어 은혁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민 여동생' 이미지에 흠집이 난데 이어, 가수로서의 공백이 길어진 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드라마로 성숙해진 이미지가 차후 가수 활동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음달 말이나 10월 초쯤 새 앨범을 내고 가수로 돌아올 예정이다. 시련을 딛고 여인이 된 아이유가 가수로 다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순호기자 ssk0427@metroseoul.co.kr

우승 상금 3억 기부 로이킴 약속 지켰다

가수 로이킴(사진)이 엠넷 '슈퍼스타K 4' 우승상금을 기부했다.

로이킴은 음반 제작비 2억원을 제외하고 받은 3억원과 23일 개최한 팬미팅 수익금 2000여만원을 굿네이버스와 한국소아암센터, 유재하장학재단, 동물학대방지연합, 푸르메재단, 한국음악발전소 원로가수 후원, 다문화 가정 악기 후원 등 20여 곳에 나눠 내놓았다.

음반 제작사인 CJ E&M 측은 "5월부터 시작한 기부를 최근 완료했다. 앞으로도 의미있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킴은 미국 조지타운대에서의 수학을 위해 25일 현지로 출국했다. /조성준기자

래퍼들 '랩 디스 전쟁'

"이용하고 버렸네" "형 배신 …이 XXX" 이센스·스윙스–개코·사이먼디 비판

한솥밥을 먹던 동료 선후배 래퍼들이 '디스 전쟁'을 벌이고 있다. 디스(diss)란 랩으로 남을 헐뜯는 힙합 용어다.

아메바컬쳐에 소속된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와 사이먼디는 이센스와 스윙스가 자신들을 비난한 노래에 맞서 24~25일 '아이 캔 컨트롤 유' 등을 공개했다.

24일 오후 엠넷 '엠카운트다운 왓츠 업 LA' 출연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난 개코는 출국 당일 새벽 녹음해 SNS로 발표한 '아이 캔 …'에서 "넌 열심히 하는 래퍼 애들한테 대마초를 쥐네 (중략) 잡아준 형 배신비고 카톡으로 등 돌리는 식"이라며 대마초 흡연 사건에 휘말려 아메바컬쳐를 떠난 이센스를 대 놓고 비난했다. 이센스는 아메바컬쳐에 몸담고 있을 당시 슈프림팀이란 이름의 듀오로 사이먼디와 함께 활동했다.

사이먼디는 다음날 새벽 '사이먼 도미닉 … 컨트롤'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올린 노래에서 스윙스를 상대로 "넌 진실을 말할 자격이 있지 이 XXX야"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항공했다. 앞서 이센스는 '유 캔트 컨트롤 미'란 노래에서 자신을 이용하고 버렸다는 내용의 랩으로 아메바컬쳐와 선배 다이나믹 듀오를 거칠게 공격했다. 스윙스도 '황정민(King Swings Part 2)'이란 노래로 이센스의 주장을 거들면서 사이먼디까지 싸잡아 욕했다.

사이먼디 · 이센스 · 개코 · 스윙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2화 글 · 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올라갈 땐 멀쩡한 무릎 내려갈 땐 '찌릿'

킬힐 자주 신는 2030 여성 '연골연화증' 늘어
제때 치료 않고 방치하면 퇴행성관절염 악화

운동 마니아와 10㎝가 넘는 킬힐 구두를 신는 20~30대 여성들이 늘면서 최근 무릎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단순한 통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난 후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반월상연골판 손상'이다.

이 증상은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 사이에 위치해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관절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C자 형태의 연골인 반월상연골판이 손상됐거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활동 중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착지하는 순간 무릎의 회전력에 의해 연골판이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연골판 손상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무릎이 뻑뻑한 느낌이 들거나 통증도 심하지 않다. 그러나 방치하면 2차적인 연골 손상이 발생,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돼 심한 손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상호병원 유상호 병원장은 "무릎이 부어오르거나 걸을 때 무릎에 갑자기 힘이 빠져버리는 증상이 있을 때는 반월상연골판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신체적으로 무릎의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슬개골을 잡아주는 근력 역시 약하다. 이로 인해 슬개골의 움직임이 과다하게 발생해 슬개골과 대퇴골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충돌로 인해 연골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손상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손상이 진행되는 질환을 '연골연화증'이라고 하는데 이 질환 역시 반월상연골판 손상과 함께 젊은 연령에서의 발병이 늘어나고 있다.

연골연화증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생기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연골에 대한 충격으로 파손된 연골 부분이 재생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 무릎통증이 심하고 오래 앉아 있다 일어설 때 심한 통증을 느낀다.

이같은 두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행성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릎관절 통증이 있으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 심하지 않으면 주사치료 가능

유상호 병원장은 "연골판 또는 연골의 손상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땐 간단하게 인대 · 힘줄, 섬유연골의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롤로 인대강화주사 또는 DNA 주사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롤로 인대강화주사는 고삼투압 용액으로 구성된 주사액을 손상된 연골이나 연골판 부위에 주사하는 것. 체내에서 건강한 염증세포를 불러 모아 인대나 연골 · 연골판을 재생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을 준다. 또 DNA 주사는 혈관 내에 있는 섬유아세포, 콜라겐과 같은 성장인자를 자극해 통증을 감소시키고 세포의 증식과 재생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황재용기자

CJ몰 뷰티 전체 1위한 수분크림은?

불볕더위 잡는 라라베시 악마크림 3탄 인기!

19년 만에 최장 열대야를 기록한 올 여름!

찜통 같은 불볕더위와 열대야 속에서 라라베시의 여름용 수분크림 악마크림 3탄이 여성들에게 주목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라라베시의 악마크림은 시즌별 새로운 컨셉의 제품으로 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악마크림 3탄 한정판은 브라질 마테차 수분크림으로 공식몰에서 론칭 3주 만에 완판되는 기록을 낳았다.

또한 CJ오쇼핑의 베스트셀러 상품 중 화장품 종합 카테고리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21일 소셜커머스 티몬에 2013년 단독 첫 입점과 동시에 조기 완판을 기록해 명실상부 여름 보습 최강자로 자리 매김했다.

무더운 여름 시즌에 보여준 악마크림만의 인기비결은 정제수 대신 브라질오가닉 마테차를 우려낸 마테수를 무려 76% 담았다.

라라베시측은 "브라질 오가닉 마테차를 우려낸 마테수가 시원한 브라질 이과수폭포 같은 청량 테라피 미시지로 지친피부에 활력을 주고 마테차 특유의 허브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내추럴 테라피가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악마크림이 인기와 함께 주성분인 브라질 마테 마테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열대야와 불볕더위를 잡는 악마크림 3탄은 공식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070-4142-6240

통그릴치킨 오늘부터 1만원

KFC가 신제품 통그릴치킨 출시를 기념해 26~31일 대폭 할인된 가격인 1만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

통그릴치킨은 매장에서 한 마리를 직접 오븐에 구워 겉은 노릇노릇하고 속은 촉촉한 바비큐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신제품 할인 행사는 일부 매장을 제외한 KFC 전국 매장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정상 가격 1만6200원인 통그릴치킨을 매장별 한정된 수량으로 38% 할인된 1만원에 내놓는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행사 매장은 KFC 홈페이지(www.kfckorea.com)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KFC.KO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용순기자

박지성 "봤죠 복귀 첫골"

헤라클레스전 동점골 "의미있는 결과 더 중요"

박지성(32 사진)이 친정 인 에인트호번 복귀후 첫 골을 뽑았다.

박지성은 25일 네덜란드 알멜로에서 열린 현지 프로축구 에레디비지에(1부리그) 2013 2014 시즌 4라운드 헤라클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21분 교체 투입돼 경기 막판 극적인 1 1 동점골을 터트렸다.

박지성이 에인트호번 소속으로 득점포를 가동하기는 2005년 5월 30일 암스테르담 이후 8년 3개월만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시절로 따지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몸담고 있은 당시인 2012년 1월 28일 잉글랜드 FA컵 리버풀전 이후 575일만에 골맛을 봤다.

지난 시즌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던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올 시즌 임대 이적으로 에인트호번 유니폼을 갈아입은 박지성은 교체 투입 9분만에 상대 수비수의 반칙을 이끌어내며 프리킥을 얻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후반 41분 페널티 지역에서 동료 스탄 스카스로부터 공을 받은 박지성은 수비수를 등진 채 넘어지며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고 이 슈팅은 골문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갈랐다.

3연승을 달리던 에인트호번은 박지성의 천금같은 동점골에 힘입어 첫 패배의 위험을 딛고 3승1무째를 기록했다.

21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강호 AC밀란을 상대로 선전한데 이어 두 경기 연속 멋진 모습을 과시한 박지성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의 골 기록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박지성(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넘어지면서 오른발 슛을 날리고 있다. /에인트호번 홈페이지 캡처

김하늘 23언더 역대 최소타 우승

김영주골프오픈 최종일

김하늘(25 KT 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역대 최소타 기록을 갈아치우며 MBN 김영주 골프 오픈 정상을 차지했다.

김하늘은 25일 경기도 양평TPC 골프장(파72 642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9개를 쓸어담아 9언더파 63타로 72홀 합계 23언더파 265타를 적어내며 우승했다.

2011년과 2012년 연속으로 상금왕에 올랐던 김하늘은 올 시즌 드라이버 샷 난조로 1승은 커녕 10위 안에 한 번도 들지 못했다. 그러나 이 대회의 선전으로 지난해 10월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 이후 10개월만에 통산 8승 째를 기록했고 상금으로 1억원을 챙겼다.

공동 4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김하늘은 전반에만 버디 5개를 잡는 맹활약에 이어 18번홀(파4)에서 6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우승을 확정지었다.

/조성준기자

김하늘이 우승 트로피에 키스를 맞추고 있다. /KLPGA 제공

또 1회 악몽 --류현진 5이닝 4실점 첫 2연패

류현진(26·LA 다저스)이 올 시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2연패를 당했다.

류현진은 25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했으나 1회초 1사 1 2루에서 상대팀 셰인 빅토리노에게 3점 홈런을 맞고 4실점하는 등 5이닝동안 4실점하고 0 4로 뒤진 5회말 공격 때 대타 닉 푼토와 교체됐다.

팀은 결국 2 4로 패해 5패(12승)째를 떠안았다. 평균 자책점은 2.95에서 3.08로 높아졌고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 행진도 3경기에서 중단됐다.

6연승을 달리던 류현진은 이날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삼진을 7개나 잡아냈지만 투구수는 89개로 4월 3일 샌프란시스코전(80개)과 5월 6일 샌프란시스코전(85개)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고 올 시즌 처음으로 몸에 맞는 공과 3점 홈런을 내줬다.

/조성준기자

프로축구 전적 25일

대구	0	2	수원
경남	0	0	서울
전남	2	3	포항

최하위 한화 선수들이 두산에 2연승을 거둔 뒤 밝은 얼굴로 하이 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최정 2년연속 '20-20 클럽'

SK, NC 2-0으로 꺾어 한화 두산전 2연승

SK 최정(작은 사진)이 2년 연속 20홈런-20도루를 달성했다.

최정은 25일 경남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NC와의 원정 경기에 3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1회초 도루를 성공하며 20-20클럽에 가입했다.

전날까지 홈런 24개와 도루 19개를 기록 중이었던 최정은 1회 1사 2루에서 좌전 적시타를 치고 출루한 뒤 이재원이 타석에 들어섰을 때 2루를 훔쳤다.

지난해 최정은 26개 홈런과 도루 20개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홈런-20도루를 달성했고 역대 6번째로 2년 연속 20-20클럽 가입에 성공했다.

SK는 NC를 2-0으로 꺾었다.

최하위 한화는 잠실구장에서 갈 길 바쁜 두산을 3-2로 제압하며 2연전을 모두 승리했다. 두산은 3위 수성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밖에 선두 삼성은 롯데를 5-2로 눌렀다.

/정책팀기자

프로야구 전적 25일

■잠실

한화	300	000	000	3
두산	020	000	000	2

■목동

KIA	102	030	111	9
넥센	200	002	002	6

■사직

삼성	001	001	210	5
롯데	000	101	000	2

■마산

SK	100	100	000	2
NC	000	000	000	0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here were you going when I saw you at the mall? 과거에 했던 일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Liz, do you know Jack's phone number?
B No, I don't. 난 그의 전화번호를 잊어버렸어. I don't have my cell phone now.
A Hmm...what time did he say he was going to come to the party?
B Oh, 난 그가 몇 시에 오겠다고 했는지 잊어버렸어.

정답 I forgot his phone number. / I forgot what time he said he was going to come.

New English 900 웹사이트(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생생영어팁

▶ I forgot to call you
당신에게 전화한다는 것을 깜빡 잊었어요

forget to는 '~해야 하는[할] 것을 잊다'라는 뜻입니다. I forgot to email him.은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야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보냈다'는 뜻이죠. 반면 forget -ing는 '~하는[한] 것을 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forgot calling him.은 '그에게 전화한 것을 잊었다'는 뜻이 되죠. 이렇게 forget 다음에 to부정사를 쓰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다'라는 뜻이고, forget 다음에 -ing로 끝나는 동명사가 오면 '이미 한 일을 잊고 있다'는 뜻이니 차이점을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셀 수 없는 명사

▶ 모양이나 형체가 없는 명사를 말한다.
셀 수 없어서 a/an, -s /-es 등을 붙일 수 없다.

추상적인 개념	music 음악, weather 날씨, furniture 가구류, money 돈, love 사랑, English 영어(언어명), soccer 축구(스포츠명), information 정보
액체나 기체, 유사물	water 물, coffee 커피, milk 우유, butter 버터, bread 빵, cheese 치즈, soap 비누, rice 쌀, flour 밀가루, paper 종이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써보세요.

1 The weather is nice in the spring. 봄에는 날씨가 좋아요.
2 Can you get me some water, please? 물 좀 갖다주시겠어요?
3 Andy needs some information about coffee. 앤디는 커피에 관한 정보가 좀 필요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Evelyn Chu's Web site provides consumers with reviews and price _______ of electronic devices currently on the market.
(A) compare (B) comparisons
(C) have compared (D) compares

02 The investment in solar energy _______ costly for the town of Wexford initially, but in the long run it is expected to be financially beneficial.
(A) deemed (B) established
(C) proved (D) assessed

01 에블린 추의 웹사이트에서는 현재 시판 중인 전자기기에 대한 평가와 가격 비교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해설 문맥상 '가격 비교'를 의미하는 복합명사인 price comparisons를 만든다.
어휘 electronic device 전자기기 currently 현재 comparison 비교
정답 (B) comparisons

02 태양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초기에는 웩스퍼드 시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로 판명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으로 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 [illegible] costly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의미가 맞다. 따라서 자동사인 (C) proved를 써야 한다.
어휘 costly 비용이 많이 드는 initially 처음에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financially 재정적으로 beneficial 유익한 deem 을 ~로 여기다 assess 평가하다
정답 (C) proved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3 Respond to questions

4,5번 질문 유형 파악하기(5초 답변)

- 방법/경로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Q How do you find information on products you want to buy?
당신은 사고 싶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찾습니까?

A [방법 언급]
I usually fin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저는 주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습니다.
[방법 선택의 이유]
There are many Web sites where you can find reviews of products and compare the prices. They help me choose the best product.
제품들의 후기를 볼 수 있거나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제품을 선택하게끔 도와줍니다.

How 질문의 경우 뒤따르는 내용에 따라 답변 방법이 다양하다. 위 예시의 경우 '어떻게 ~을 하느냐'라고 방법을 묻는 질문이므로, 본인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언급한 다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도록 한다.